

AI로 특허분석 900배 빠르게 '척척'

LG이노텍, AI 미래기술 선점 속도

AI 활용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
수만건 정보 세부기술단위로 분류
특허분석해 연구개발 전략도 수립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으로 특허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고객을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 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이노텍은 AI를 활용한 특허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정보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서 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유사특허나 특허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물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LG이노텍의 특허정보 시스템은 AI로 수만건 특허 빅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해 개발 방향 수립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특허정보가 단순히 리스크 관리와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R&D 전략 수립에 선

행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을 끝내고 특허를 창출하던 방식이 아닌, 특허를 분석해 R&D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시스템 업무 처리 속도는 사람보다 900배나 빠르다. 특허정보 5만건을 분석하려면 5명이 하루 8시간씩 100일을 수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4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

LG이노텍은 AI연구원과 개발한 AI 문장 인식 모델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허 문서 텍스트와 문맥을 실시간으로 자동분석하는 내용으로, 특허 응용분야와 해결과제, 방안 등 핵심 정보를 빠르게 추출해낸다. AI가 기술 데이터 분류 기준을 지속 학습해 특허정보 수만건을 세부 기술단위로 자동 분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LG이노텍은 매년 300만

건 이상 출원되는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동향과 산업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기존 제품과 차별화 영역을 세분화 및 정교화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현실화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제품과 기술 개발, R&D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편의성 개선과 문맥분석 기능 고도화로 마케팅과 상품기획, 인사 등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도 있다.

강민석 CTO는 "특허정보는 미래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향후에는 전 세계에서 축적한 특허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기술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DX를 적극 활용한 전략적 R&D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지속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오일뱅크, 세계 최대 수소기업과 맞손

에어프로덕츠와 업무 협약
수소에너지 활용 등 협력



6일 서울 중구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에서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글로벌 수소 기업 에어프로덕츠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6일 체결식에서 현대오일뱅크강달호 대표와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김교영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에어프로덕츠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수소 생산업체다. 천연가스와 정유 부산물 등 다양한 원료로 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공장 운영 노하우와 수소 액화 등 저장, 수송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블루수소, 화이트바이오, 친환경 화학 및 소재 사업을 3대 친환경 미래 사업으로 선정한 현대오일뱅크는 2025년까지 블루수소 10만 톤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블루수소는 화석연료가 수소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제거된 친환경 에너지다. 탄소 처

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소 제조원가를 낮추고 탄소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에어프로덕츠의 앞선 제조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원유 부산물과 직도입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한 수소는 자동차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되며 탄소는 별도 설비를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인 탄산칼슘과 드라이아이스, 비료 등으로 자원화 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SKT, 기업용 IP장비에 양자보안 심는다

전용망 없는 기업도 서비스 이용
양자암호통신 기술 대중화 기대

보안기술 '양자암호통신(QKD)기술'이 IP장비에 적용돼 B2B기업용으로 나온다.

SK텔레콤은 IDQ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라우터와 스위치 등 기업용 IP 장비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용 '퀵 VPN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VPN은 가상 사설망으로, 개별 B2B 고객에게 독립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통신 서비스다.

이번에 QKD(Quantum Key Distributor, 양자암호키분배기) 기반의 '퀵 VPN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전용망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도 양자암호를 활용한 통신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퀵 VPN 기술'은 기업용 IP장비 보안 기술과 양자암호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으로, 다양한 B2B 망구조와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보안성도 극대화했다.

SKT는 기존 특화된 5G 전송망(서울~대전, 대전~대구) 등에 QKD를 이용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운용해 왔다.

이번에 전송망이 아닌 기업용 IP장비와 연동 테스트를 완료해 향후 양자암호통신 기술 대중화 및 기업용 보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QKD를 연동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속 개발하고 QKD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암호방식의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SKT 하민용 Innovation Suite 장은 "앞으로도 SK텔레콤은 고객에게 최고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지난 5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왼쪽부터)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SK종합화학 이종혁 담당, 우시산 변의현 대표, 이노버스 장진영 대표가 '부산항 더 착한 자원순환 사업'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종합화학,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5개 기관과 맞손, 부산항에 구축

SK종합화학이 정부기관, 국제기구, 사회적기업 등이 손잡고 해양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에 나선다.

SK종합화학은 지난 5일 부산항만공사, 부산관광공사, 우시산, 이노버스,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부산항 더 착한 자원순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이후 더욱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보존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및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취약계층에 기부까지 되는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부산항은 국내 1위, 세계 항만 순위 6위의 글로벌 허브항만이다.

SK종합화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협약에는 SK이노베이션이 육성 및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이노버스와 우시산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 창출 의미를 더한다.

/김수지 기자

의료AI 재이랩스,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투자 협약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 초석

글로벌 벤처투자기업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손을 잡았다.

의료 AI 전문 데이터라벨링 기업 재이랩스는 서울 강남구 요즈마그룹코리아 사무실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요즈마그룹의 한국법인과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전략적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를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이스라엘에서 출범한 요즈마그룹은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업으로 2015년 한국법인을 설립했으며, 미래 비전과 기술 경쟁력을 지닌 국내의 스타트업 성장을 돕고 있다. 요즈마그룹이 최근 SK텔레콤과 공동



이준호 재이랩스 대표(왼쪽 두번째)가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고 있다.

투자한 이스라엘 의료 벤처기업 나눅스는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다.

요즈마그룹은 재이랩스가 개발한 의료 AI 데이터라벨링 솔루션 '메디라벨'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메디라벨은 딥러닝 AI 기술을 활용해 AI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의료 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가공할 수 있는 전처리 솔루션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대비 속도 10배,

정확도는 2배 수준으로 라벨링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재이랩스와 요즈마그룹은 단순 재무적 투자관계를 넘어 재이랩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마그룹은 재이랩스의 고도화된 의료 데이터라벨링 기술을 나눅스 등 요즈마그룹네트워크를 통해 확장해 나가며 해외진출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포스코 텀블러 사용 등 '마이 리틀 챌린지'

포스코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스코는 임직원들이 지난 5일부터 동료들과 소통하며 일상 속 작은 목표를 함께 실천하는 '마이 리틀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 리틀 챌린지'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직원 개인의 삶은 물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목표(챌린지)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개

설된 챌린지는 ▲텀블러 사용하기 ▲하루 1만 보 걷기 ▲계단 오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ESG 관련 기사 읽기 등 직원들의 습관 형성을 돕는 다채로운 미션들로 구성됐다.

포스코 직원들은 목표 달성 지원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정해진 기간 동안 챌린지를 수행하고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천 과정을 동료들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